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2卷(2), 2009. 8, pp. 1~20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임 언*

본 연구는 2006년 PISA 학교 설문에 포함된 진로지도 관련 문항을 분석하여 OECD 국가의 진로교육 실태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에 따라서 진로교육을 하는 정도와 산업체가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진로교육과 학업성취, 경제적 수준의 상관 정도를 검토하였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진로지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음이 일관되게 드러났다. 직업교육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도제식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진로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산업체가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국가 경제력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진로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에 책임을 지는 특정교사 혹은 상담가를 배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진로교육에 대한 책임을 모든 교사에게 분산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 주제어: 진로지도, 진로교육, 국제 비교, PISA

투고일: 2009년 6월 30일, 심사일: 7월 13일, 게재 확정일: 8월 17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lim@krivet.re.kr)

I. 서론

세계 금융 위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이로 인한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학교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얽혀 현재의 모습이 되었으며, 향후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모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것은 녹록치 않다.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우리의 학교 교육이 지식 위주로 편중되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유독 무용지식¹⁾에 집착하는 가운데, 학교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제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이득재, 2008).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학문적 맥락에서 추출된 위계화 된 지식에 대한 이해보다는 끊임없이 실제 맥락에 적합한 지식을 생성하고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교과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소경희, 2006). 학교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적 지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구성되려면, 그 중심에 진로교육이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성찰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파편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교육활동 속에서 매우 주변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학교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현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현황을 검토한 연구(오호영·이지연·윤형한, 2007; 이지연·최동선·이혜숙, 2007; 임언·장홍근·윤형한, 2005)는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 조사 결과에만 기초하여 우리나라 진

1) 토플러(Toffler)가 저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만들어낸 신조어 'obsoledge'를 번역한 것이다. 무용지식이란, 기존에 지식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더 이상 사실이 아니며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로교육의 객관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중등학생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율이 3.0%~7.0%로 한국청소년패널('03~'08)에서 확인되었다면(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이것이 저조하다는 것을 국내 자료만을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국내 통계치를 비교할 국제적 준거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우리나라 현황을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준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본 연구에서는 PISA 2006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각국의 진로지도 상황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PISA 2006에서 포함하고 있는 진로지도 관련 문항은 학교장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직업박람회 참여, 기업인 초청 강연, 기업체 방문을 1년에 1회 이상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학교장의 응답 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진로교육 실태를 비교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만 15세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가?

둘째, OECD 국가들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구분에 따를 때, 유형별 진로지도 실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OECD 국가를 고등학교 직업교육 유형별로 비교할 때, 산업체의 의견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정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OECD 국가에서 진로지도의 주된 담당자는 누구인가?

다섯째, 직업교육 유형, 1인당 GDP, 진로지도, 산업체와 학교의 관계, 학업성취도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II. 선행 연구

1. 진로지도 현황 국제 비교 및 국내 연구

국가별 진로지도의 국제비교는 OECD에서 2004년에 출간한 보고서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14개국의 진로지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한 것으로서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각국의 전문가가 작성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OECD에서 선정한 전문가가 각 국가를 직접 방문하고 국가별로 정책적 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OECD 차원에서의 진로지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국가별로 작성한 설문 속에서는 통계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별로 표준화된 형태로 조사된 내용이 아니므로 통계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가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례 중심의 질적인 비교 결과만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진로지도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에 두고 있다. 첫째, 진로지도는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며, 둘째,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진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하여 학교에서는 진로 지도를 학업 및 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 중심의 개인적인 서비스 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진로관리 스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한상근 외(2002)는 한국인의 직업의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진로지도협회(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1998년 조사한 문항 중 일부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양 국가의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 및 서비스 실태를 비교하였다.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직업 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 10대 및 20대는 44%~66%에 이르는 응답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18~25세 젊은이는 단지 16%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 나라 청년들 간에는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에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진로상담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우리나라 15~19세의 7.8%, 20~39세의 8.1%인 반면에 미국의 18세~25세 젊은이들은 30%가 진로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지도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는데 비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간 진로지도 현황을 통계치로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별로 다양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관통하는 동일한 비교틀을 만들어 통계치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진로지도 실태에 대한 국내 조사 결과는 적지 않다.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임언 외, 2008)에 의하면, 학생들은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또한 진로교육에 열정이 있는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탐구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의욕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와 현실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설문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맹영임·임경희, 2008), 55.3%의 교사가 진로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 연구에서의 직업교육 유형 구분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실태를 각국의 직업교육 유형과 연관지어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가별 직업교육 유형을 구분한 선례를 검토하였다.

OECD 국가들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유형을 최지희·최영렬(2006)은 직업교육 비중에 따른 구분과 직업교육 이수자의 진로별 특징에 따른 분류로 제시하였다. 먼저 직업교육 비중에 따를 때, 직업교육의 비중이 50% 이상인 국가와 그 이하인 국가로 구분하고 전자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이, 후자에는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멕시코가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또 다른 국가 직업교육 유형 분류 방식은 직업교육 이수자의 진로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으로서 직업교육 이수자의 경로가 4년제 직업 계열 대학인 나라(스웨덴, 핀란드), 고교단계 직업교육 이수자의 경로가 2년제 전문대학인 경우(독일), 직업교육 이수자의 경로가 원칙적으로 노동시장인 경우(한국, 네덜란드 등)로 구분하였다.

송창용·김민경(2009)은 1999년 OECD에서 제시한 구분을 적용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유형을 도제형, 혼합형, 학교기반, 일반교육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도제형 직업교육 국가는 후기중등교육단계에서 전체의 50% 이상이 도제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로서 독일과 스위스가 이에 해당된다. 혼합형 직업교육 국가는 도제식 직업교육과 학교 기반의 직업교육이 혼합된 형태로 고교단계에서 도제식 직업교육 참여자가 20% 이상 50% 미만의 범주에 있으며 일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50% 미만인 경우로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이에 속한다. 학교기반의 직업교육 국가는 고등학생의 50% 이상이 직업교육에 참여하지만, 도제식 직업교육 참여자는 20% 이하인 경우로서 벨기에,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영국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형 국가는 전체 고등학생의 50% 이상이 일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이 이에 해당한다.

2008년도 OECD에서 발간한 'Education at a Glance'에서는 명백한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는 있지 않으나, 일반교육이 지배적인 국가를 언급하는 가운데 60%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 분류 기준에 의하면 캐나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가 일반교육 중심의 국가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2008년도 OECD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1999년도 OECD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설문 문항

가. PISA 2006 조사 개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 수준 파악 및 이와 관련된 배경 변인을 조사하여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OECD를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PISA 2006 본 검사는 2006년 6월 7일~6월 13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총 57개국(OECD 국가 30개국 포함)의 약 40만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PISA 본부가 표집한 154개 학교의 만 15세 학생(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가 고 1에 재학 중임) 약 5,000명이 참여하였다.

나. PISA 2006 진로지도 관련 문항

PISA의 학교 수준 설문 중에서 진로지도의 현황을 드러내는 문항은 직업박람회 참가, 기업체 대표의 강연 청취 기회, 기업체 방문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학교장들은 이러한 활동을 재직할 학교에서 ① 전혀 제공하지 않음, ② 1년에 한 번, ③ 1년에 한 번 이상을 실시하는지 응답하였다. 국가별로 평균 300명 내외의 학교장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각국의 진로지도 점수는 이와 같이 직업세계를 안내하는 활동의 빈도 정도에 따라서 학교별로 가중치를 각각 0, 1, 2로 부여하여 국가별 진로지도 총점을 계산하였다. 산업체가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① 전혀 영향 없음, ② 약간 영향 있음, ③ 상당히 영향 있음 중의 하나로 응답하였으며, 산업체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각각 0, 1,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업체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국가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2. 본 연구에서의 직업교육 유형 구분

진로교육의 현황을 OECD 각국의 직업교육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자, 2006년도 기준 각국의 직업교육 비율과 도제형 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검토하였다. 다음의 <표 1>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학생 등록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직업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25% 이하이면 일반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25% 이상이면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되, 그 과정을 이수한 것이 특정한 직업과 관련된 자격과 연계 되지 않으며, 향후 이어질 직업교육에 대비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 예비 직업교육(pre-vocational education)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고교 중에서 60% 이상의 학생이 일반계 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를 일반교육형 국가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캐나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헝가리,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가 속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40%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혼합형 프로그램(샌드위치 혹은 듀얼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 직업교육(예비 직업교육 포함)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50%를 넘을 경우 도제식 직업교육형 국가로 구분하였으며, 덴마크, 독일, 스위스가 이에 해당된다. 전체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견주어 혼합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20% 이상 50% 이하인 국가를 준 도제식 직업교육형 국가로 구분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가 이에 해당된다.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40% 이상이면서도 그 학생들의 20% 이하가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교 기반 직업교육형 국가로 구분되며, 이러한 국가에는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이 속한다.

<표 1> OECD 국가의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 비율 및 국가별 직업교육 유형

(단위: %)

국가명	프로그램 유형					혼합형/ (직업교육+ 예비 직업교육)	국가별 유형
	일반교육	예비 직업 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예비 직업	혼합형 (학교기반+ 현장기반)		
Australia	38.4	a	61.6	61.6	m	m	학교
Austria	22.1	6.2	71.8	77.9	33.0	42.4	준 도제
Belgium	30.6	a	69.4	69.4	3.5	5.0	학교
Canada	94.6	x(6)	5.4	5.4	a	a	일반
Czech Republic	20.7	0.1	79.2	79.3	34.8	43.9	준 도제
Denmark	52.2	a	47.8	47.8	47.6	99.6	도제
Finland	34.6	a	65.4	65.4	10.9	16.7	학교
France	56.9	a	43.1	43.1	11.6	26.9	학교
Germany	40.6	a	59.4	59.4	44.2	74.4	도제
Greece	66.1	a	33.9	33.9	5.1	15.0	일반
Hungary	76.3	10.7	12.9	23.7	12.9	54.4	일반
Iceland	63.3	1.5	35.2	36.7	16.7	45.5	일반
Ireland	66.6	31.0	2.4	33.4	2.4	7.2	일반
Italy	39.5	35.6	24.9	60.5	a	a	학교
Japan	75.4	0.9	23.7	24.6	a	a	일반
Korea	72.2	a	27.8	27.8	a	a	일반
Luxembourg	37.1	a	62.9	62.9	13.8	21.9	학교
Mexico	90.2	a	9.8	9.8	m	m	일반
Netherlands	32.5	a	67.5	67.5	18.3	27.1	학교
New Zealand	m	m	m	m	m	m	-
Norway	40.0	a	60.0	60.0	13.9	23.2	학교
Poland	56.0	a	44.0	44.0	6.3	14.3	학교
Portugal	68.5	19.9	11.6	31.5	m	m	일반
Slovak Republic	26.3	a	73.7	73.7	30.9	41.9	준 도제
Spain	57.5	n	42.5	42.5	2.2	5.2	학교
Sweden	44.9	0.9	54.2	55.1	n	n	학교
Switzerland	35.8	n	64.2	64.2	57.8	90.0	도제
Turkey	63.7	a	36.3	36.3	n	n	일반
United Kingdom	58.3	x(6)	41.7	41.7	m	m	일반
United States	100.0	x(4)	x(4)	-	x(4)	-	일반

주: 1) 유형: 일반-일반교육 중심형, 학교-학교 기반 직업교육형, 준 도제-준 도제 직업교육형, 도제-도제식 직업교육형.

- 2) a: 분류에 적용되지 않아 data를 사용할 수 없음.
 m: 데이터 이용 불가능.
 n: 크기를 무시해도 좋거나 0인 경우.

IV.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비율과 도제식 듀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일반교육형, 학교 기반 직업교육형, 준 도제 직업교육형, 도제식 직업교육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진로지도, 산업체와의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국가의 경제력 수준과 학생들의 학업성취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1. OECD 국가별 진로관련 경험 비율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직업박람회 참여 여부,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현장실습)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 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경험을 갖는다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박람회 참여,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현장실습이 OECD 28개국 중에서 각각 24위, 21위, 26위, 25위로서 일관되게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직업박람회는 노르웨이, 호주, 영국 순서로 많이 하고 있으며, 기업인 강연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의 순서로, 또한 기업체 방문은 독일, 핀란드, 덴마크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세 활동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결과는 오스트리아(421.6), 독일(412.9), 호주(396.7)의 순서로 높았으며, 한국은 157.6으로 벨기에(125)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표 2> OECD 국가에서의 진로지도

(단위: 1년에 한 번 이상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국가명	직업박람회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진로지도 점수*
Australia	94.6 (2)	86.8 (3)	78.9 (12)	396.7 (3)
Austria	74.0 (10)	89.2 (1)	92.4 (4)	421.6 (1)
Belgium	17.5 (27)	24.8 (28)	58.5 (24)	125.0 (27)
Canada	79.4 (7)	87.4 (2)	74.2 (17)	336.9 (7)
Czech Republic	76.3 (8)	74.6 (8)	84.1 (11)	344.0 (5)
Denmark	75.3 (9)	85.0 (5)	93.1 (3)	343.9 (6)
Finland	69.8 (11)	80.6 (6)	94.0 (2)	326.5 (8)
France	·	·	·	·
Germany	89.4 (4)	78.9 (7)	94.5 (1)	412.9 (2)
Greece	65.4 (14)	38.9 (27)	76.8 (14)	240.4 (19)
Hungary	38.1 (25)	50.9 (24)	77.9 (13)	227.8 (22)
Iceland	50.9 (21)	64.5 (13)	71.9 (18)	244.7 (18)
Ireland	43.6 (22)	51.6 (22)	43.4 (27)	187.2 (23)
Italy	58.3 (17)	62.3 (15)	66.7 (20)	272.3 (14)
Japan	·	63.4 (14)	27.2 (28)	·
Korea	38.4 (24)	51.8 (21)	44.1 (26)	157.6 (26)
Luxembourg	58.9 (16)	60.6 (16)	84.5 (9)	248.9 (17)
Mexico	17.7 (26)	46.3 (25)	57.5 (35)	176.3 (25)
Netherlands	69.3 (12)	57.5 (17)	71.6 (19)	278.1 (12)
New Zealand	80.2 ((6)	70.0 (10)	58.7 (23)	302.0 (11)
Norway	97.6 (1)	69.0 (11)	84.9 (8)	325.4 (9)
Poland	·	·	·	·
Portugal	66.0 (13)	56.1 (18)	85.5 (6)	265.5 (15)
Slovak Republic	41.7 (23)	65.1 (12)	75.5 (15)	235.7 (20)
Spain	51.0 (19)	54.9 (19)	75.1 (16)	231.1 (21)
Sweden	61.0 (15)	51.0 (23)	87.3 (5)	255.5 (16)
Switzerland	82.9 (5)	54.1 (20)	85.2 (7)	311.1 (10)
Turkey	51.0 (20)	43.8 (26)	60.9 (21)	182.5 (24)
United Kingdom	92.0 (3)	85.0 (4)	84.4 (10)	369.6 (4)
United States	54.6 (18)	73.2 (9)	60.6 (22)	272.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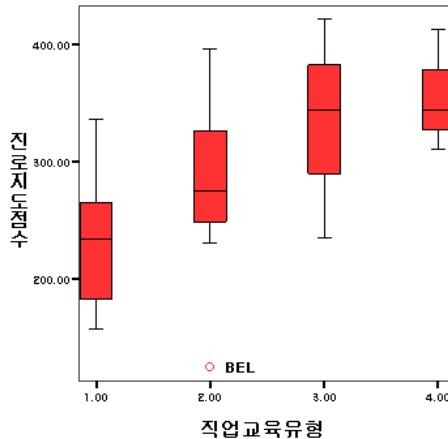
주: 1) 괄호 안은 국가별 순위임.

2) * 진로지도 점수는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을 각각 0, 1, 2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각국의 진로지도 현황을 가중치를 주어 계산한 점수를 직업교육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가 [그림 1]과 같다. 이 자료는 조사 대상 국가 전체가 응답한 것이므로, ANOVA와 같은 통계적 추론을 위한 평균 비교를 하지 않았으며, 평균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직업교육 유형에 따라서 진로지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교육중심형(229.1), 학교기반 직업교육형(282.3), 준 도제 직업교육(333.8), 도제식 직업교육(356.0)의 순서로 직업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수록 진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직업박람회,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과 같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들의 경우 더욱 더 선명하게 직업교육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 국가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점수 평균



주: 1-일반교육 중심, 2-학교기반 직업교육, 3-준 도제 직업교육, 4-도제식 직업교육.

2.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체가 미치는 영향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체가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리나라는 7.43%만이 산업체가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산업체의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호주의 경우 52.1%, 독일은 25.7%가 산업체로부터 교육과정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산업체의 영향에 대한 학교장의 응답 결과를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약간 영향이 있음, 상당히 영향을 미침으로 각각 0, 1,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업체의 영향 점수를 환산하였다. 산업체 영향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145.72)이며, 그 다음이 독일(111.27), 영국(104.27), 스위스(97.54), 미국(93.91), 호주(92.44), 캐나다(91.84)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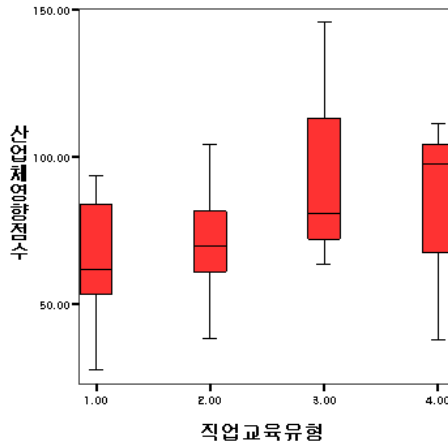
<표 3> 교육과정에 산업체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

(단위: 학교 비율)

국가명	전혀 영향 없음	약간 영향 있음	상당한 영향 있음	산업체 영향 점수*(순위)
오스트리아	5.29	41.52	52.10	145.7(1)
영국	10.50	74.22	15.14	104.5(3)
독일	12.31	61.13	25.07	111.3(2)
호주	16.50	74.56	8.94	92.4(6)
캐나다	16.82	71.70	10.07	91.8(7)
스위스	17.20	66.30	15.62	97.5(4)
미국	17.62	65.35	14.28	93.9(5)
뉴질랜드	17.64	73.84	4.26	82.4(9)
핀란드	22.49	73.38	4.13	81.6(10)
아일랜드	24.89	60.10	13.69	87.5(8)
헝가리	27.47	62.91	8.91	80.7(12)
아이슬란드	28.49	64.26	4.61	73.5(14)
벨기에	33.30	55.84	10.42	76.7(13)
슬로바키아	34.67	47.70	16.63	81.0(11)
이탈리아	34.95	50.36	11.19	72.7(15)
룩셈부르크	36.44	59.49	3.77	67.0(16)
노르웨이	37.82	58.94	3.25	65.4(17)
스웨덴	42.45	51.01	5.04	61.1(21)
한국	44.32	46.88	7.43	61.7(19)
체코	44.78	41.28	11.12	63.5(18)
터키	47.87	43.46	7.07	57.6(22)
멕시코	52.84	20.48	20.42	61.3(20)
네덜란드	53.57	40.79	4.93	50.7(23)
포르투갈	54.62	40.02	4.60	49.2(24)
일본	62.81	36.24	0.95	38.1(26)
덴마크	63.65	34.87	1.48	37.8(27)
스페인	64.53	31.62	3.28	38.2(25)
그리스	76.58	19.14	4.29	27.2(28)

주: * 진로지도 점수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을 각각 0, 1, 2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그림 2] 직업교육 유형에 따른 산업체 영향



주: 1-일반교육 중심, 2-학교기반 직업교육, 3-준 도제 직업교육, 4-도제식 직업교육.

산업체의 영향 점수를 국가 직업교육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그림 2〕 참조) 준 도제형(96.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제식 직업교육형(82.2), 학교기반 직업교육형(71.0), 일반교육형(65.7)의 순서로 높았다. 도제형 직업교육 국가보다 준 도제 직업교육형 국가 평균이 높게 나온 것은 준 도제 직업교육형에 속하는 국가인 오스트리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도제식 직업교육형 국가인 덴마크의 경우 매우 낮은 점수(37.83)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직업교육 유형에 속하더라도 국가별로 산업체가 학교 교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3. 학교 진로교육 담당자

PISA 2006에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9%의 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정 교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는 2.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정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핀란드(95.6%), 스웨덴(87.5%), 아일랜드(82.9%)로서 유럽의 국가에서는 진로교육 전담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뚜렷한 진로교육 전

담자가 없는 가운데, 많은 교사들에게 불투명하게 책임이 분산된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4>에서 특정 교사나 고용된 상담가에게 진로교육 책임이 있는 학교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를 보면, 북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표 4>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

국가명	실시하지 않음	모든 교사	특정 교사	고용된 진로 상담가	방문 진로 상담가
일본	0.69	37.04	61.45	0.00	0.00
이탈리아	26.93	16.41	50.50	0.52	0.79
독일	1.75	6.26	43.05	0.63	27.18
헝가리	6.21	44.02	42.27	1.23	1.79
한국	0.00	70.91	19.92	2.70	3.75
벨기에	31.68	33.72	13.91	5.22	9.48
체코	0.86	4.81	78.52	10.27	2.32
터키	3.35	50.71	30.31	11.69	1.22
스위스	8.44	24.42	23.66	11.74	15.34
오스트리아	16.39	19.37	42.75	14.46	0.00
네덜란드	1.97	7.08	58.85	14.59	8.93
그리스	7.30	40.27	27.29	18.67	3.41
영국	0.00	1.34	30.16	19.90	40.74
멕시코	8.18	37.43	23.58	21.44	1.23
노르웨이	0.00	3.58	56.49	36.40	0.15
룩셈부르크	7.78	7.79	41.06	36.63	0.00
덴마크	0.00	0.98	10.53	41.00	45.70
호주	0.39	2.43	49.79	42.70	0.79
캐나다	0.71	7.36	27.79	52.68	2.40
포르투갈	6.22	3.49	9.80	70.26	7.84
미국	2.90	14.20	6.02	70.40	1.33
아이슬란드	7.85	1.69	9.50	72.12	4.38
스페인	1.06	3.58	14.04	76.36	0.40
슬로바키아	9.26	5.79	4.42	79.94	0.00
뉴질랜드	0.00	3.10	8.38	82.04	0.00
아일랜드	0.00	3.62	8.50	82.87	0.00
스웨덴	0.62	0.67	1.24	87.52	8.44
핀란드	0.00	0.00	0.00	95.6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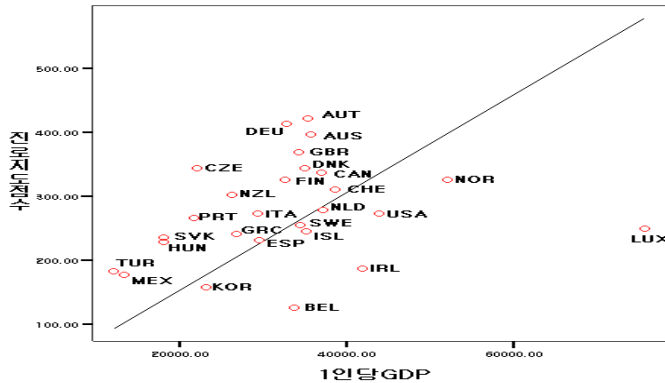
4. 진로지도, 산업체의 영향, 국가경제력, 학업성취도의 상관정도

각국의 진로지도 정도는 산업체가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1인당 GDP, PISA에서의 과학 및 수학 성적과 무시하지 못할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진로지도, 산업체의 영향, 1인당 GDP, 학업성취, 진로지도를 위한 전담인원의 비율 간 순위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3보다 높은 경우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진로지도를 위한 전담인력 비율은 앞에서 제시한 <표 4>에서 전담교사비율과 고용된 상담가의 비율을 합한 결과이다. 진로지도와 산업체가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과학 점수, 수학점수 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를 위한 전담 인원이 있다는 학교의 비율은 1인당 GDP와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진로지도, 산업체 영향, GDP, 학업성취, 진로지도 전담인원 비율 간의 Spearman 순위상관 계수

구분	진로지도	산업체영향	1인당 GDP	언어	과학	수학	전담인원 비율
진로지도	1.000	.46	.38	.29	.50	.35	.29
산업체영향	.46	1.00	.36	.41	.41	.24	-.01
1인당GDP	.38	.36	1.00	.39	.25	.31	.32
언어	.29	.41	.39	1.00	.84	.84	.14
과학	.50	.41	.25	.84	1.00	.89	.09
수학	.35	.24	.31	.84	.89	1.00	.01
전담인원 비율	.29	-.01	.32	.14	.09	.01	1.00

[그림 3] 진로지도와 1인당 GDP의 상관 정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6 PISA 조사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OECD 국가에서의 진로교육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OECD 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진로 교육 활동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직업박람회 참여,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이 우리나라는 OECD 28개국 중에서 각각 24위, 21위, 26위로서 일관되게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둘째,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을 일반교육형 국가, 학교기반 직업교육형 국가, 준 도제식 직업교육형 국가, 도제식 직업교육형 국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진로지도 현황 및 산업체가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도제식 직업교육형 국가에서 진로지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준 도제식 직업교육형, 학교기반 직업교육형, 일반교육형의 순서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체의 영향이 가장 큰 나라는 오스트리아로서 그 나라가 속한 준 도제 직업교육형 국가가 가장 산업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제식 직업교육형 국가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직업교육 유형과 무관하게 국가별로 보면 도제식 교육을 하고 있는 국가와 영미권의 국가에서 산업체의 영향이 큰 경향이 있었다.

셋째, '진로지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핀란드(95.62%), 스웨덴(87.52%), 아일랜드(82.87%)와 같은 유럽 국가일수록 고용된 응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교육에 책임이 있는 특정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이 지극히 낮은 가운데(2.7%),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70.91%). 진로교육이란 단순히 직업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삶에 대한 자기 주도적 계획과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진로개발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은 전 교과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길러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최근의 진로교육 논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임연 외, 2008).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교사에 진로교육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진로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교사가 교과 통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뚜렷한 진로교육 전담자가 없는 가운데, 많은 교사들에게 불투명하게 책임이 분산된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담교사 혹은 고용된 상담가가 진로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체로 경제력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진로지도가 활발한 정도는 국가의 1인당 GDP, 수학 및 과학에서의 학업성취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착하는 국가별 진로지도 현황은 주로 직업세계의 이해를 돕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포함할 수 있는 나라들은 일정한 경제력이 있으며, 산업체와 학교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교육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의 학업 성취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는데 반하여 진로지도를 잘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체의 의견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진로교육의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분석에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국가별로 평균 300여 명의 교장들이 응답한 것이며, 교장의 자기 보고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각국의 정서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PISA 2006에 포함된 설문 내용인 직업박람회への 참여 여부, 기업체 방문, 기업인 강연, 직업훈련 여부가 한 나라의 진로교육 실태를 대표하는 문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진로지도 혹은 진로교육의 목표라고 볼 때, 이러한 활동에는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합리적 의사 결정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나²⁾, PISA에서 포함된 자료는 직업세계의 이해를 위한 진로지도 활동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과에 포함된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을 통하여 진로지도를 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또는 진로성숙도를

2) 임언 외(2008)는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로서 ① 자기이해, 긍정적 자아개념,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태도, ②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태도, ③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④ 성역할 고정 관념을 포함한 직업에 대한 고정된 생각 타파, ⑤ 다양한 역할(여가, 지역 사회 참여, 학습자, 가족생활, 직장생활 등)의 균형 필요성 인식, ⑥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⑦ 합리적 의사 결정,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는 진로 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⑧ 정확하고 공정한 진로 정보 활용, ⑨ 미래 사회의 전망, 변화하는 고용 동향, 사회적인 요구, 경제적인 조건 등을 자신의 진로 계획에 통합, ⑩ 진로 및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⑪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를 언급하였다.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가 아니며,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에 기초한 자료라는 점에서 여기서 제시된 순위가 곧 그 나라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타당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서 각국의 학생들의 반응에 기초한 진로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연구 협력 과정에서 추진해볼 만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진로지도 상황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 위주의 학업성취를 강조하고 있고, 그 결과 PISA에서 일관되게 성취 수준이 높았으나, 그에 걸맞은 진로지도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하나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진로지도 또한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공부를 강조한다면, 그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공부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 공부를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탐색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거의 도외시 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학업 성취만을 강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로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음은 진로교육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 결과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진로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일수록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특정 교사 또는 진로 상담가와 같이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을 지는 인력이 있는 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책임은 모든 교사에게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양태를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진로교육은 단순히 별도의 교과나 특정 교과의 일정 단원을 통해서 혹은 일회성 행사로 진행될 수 없으며,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공을 들여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학교에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여 다른 교사들의 역량이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집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진로교육을 주된 교육 활동으로 인식하고 활발하게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창의적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을 학교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일자리’를 지원하는 선진 진로교육 2010+』,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맹영임·임경희(2008).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소경희(2006). 『학교지식의 변화 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4권 제2호, 39~59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창용·김민경(2009). 『주요국의 직업교육 동향』, 『The HRD Review』, 제12권 제1호, 1~2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득재(2008). 『대한민국에 교육은 없다』, 철수와 영희.
- 이지연·최동선·이혜숙(2007). 『초·중등학교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년·교과별 진로교육 요목 계열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장홍근·윤형한(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외(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지희·최영렬(2006). 『핀란드의 산학협력 HRD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근 외(2002).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Toffler, A.(2006). *Revolutionary Wealth*, 김중웅 역, 『부의 미래』, 청림출판.

abstract

Career Guidance Compared by Types of Vocational Education among OECD Countries

Eon Li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areer education in Korea with OECD countries using 2006 PISA data. Results consistently showed that in Korea, career education is less often provided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When the degree of career education is compa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vocational education in post-secondary school, countries where apprenticeship is prevalently implemented tend to provide more often students with career related activities at school than countries in which majority of student have registered to general education programs, and the very similar tendency was found in respect to the influence of industry on school curriculum. Countries in higher economic levels, tend to hire full time teacher or counsellor for career education.

Keyword: Career education, Career guidance, International comparison, PISA